크라운해태제과, 2026 한음회 광주 공연 성료

크라운해태제과(회장 윤영달) 임직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전통 국악 무대를 선보이는 '크라운해태 2026 한음회'가 28일 광주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열렸다. 〈사진〉

크라운해태제과는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024년부터 임직원들이 명인에게서 국악을 직접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순회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한음회는 광주를 시작으로 경주 등 전국 16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올해 한음회를 광주에서 시작하게 돼 뜻깊다"며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고객들에게 우리 소리의 울림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대, 중국 웨이팡공상직업대와 교류 방안 논의

호남대학교 박상철 총장은 최근 중국 산둥성 주청시에 위치한 베이징치천홀딩스그룹 웨이팡공상직업대학과 한·중 대학 간 교류협력 확대와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과 일행은 이날 정밍가오 베이징치천홀딩스그룹 이사장, 장사오츄 웨이팡공상직업대학 총장, 탕더량 부총장 등과 함께 주요 교육시설을 둘러본 뒤 양 대학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교는 올해 치기공 전공을 중심으로 산둥성 교육청에 중외합작 프로그램 인가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동휘 조선대병원 교수 국로 한마음 의학상 특별상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김동휘 교수가 지난 23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제1회 국로(國路) 한마음 의학상 시상식'에서 국로 한마음 의학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사진〉

국로 한마음 의학상은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이 주관하는 상으로, 우리나라 의학계의 학문적·임상적 성과를 조명하고 임상의학 발전에 헌신하며 애국과 인류애를 실천해 온 의료인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에 수상한 김 교수는 임상의학 발전을 위해 꾸준히 연구와 진료에 전념해 왔으며, 환자 중심의 진료와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통해 의료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보성군에 영양밥세트 전달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회장 박재홍)는 지난 27일 보성군청에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풍차 영양밥세트'를 전달했다. 〈사진〉

이번에 전달된 물품 명절 기간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물품은 총 224세트로, ▲대추칩 ▲건곤드레나물 ▲잡곡 ▲미역 ▲조미김 ▲건표고버섯 6종으로 구성됐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전달받은 물품은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히 전달해 군민 모두가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화정힐스테이트 3단지 입주민 성금 2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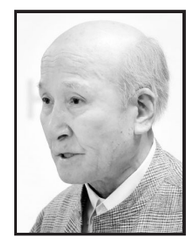
광주시 서구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는 28일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3단지 주민들이 지역 돌봄 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성금은 힐스테이트 3단지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웃 사랑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모금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화정2동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태영 회장은 "가까운 이웃을 넘어 화정2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

'단색화 대가' 정상화 화백 별세



한국 단색조 추상의 대가 정상화〈사진〉 작가가 28일 오전 3시 40분 세상을 떠났다고 갤러리현대가 28일 전했다. 향년 93세.

1932년 경북 영덕 출생인 고인은 1957년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했다. 한국현대작가초대전(1960), 악뛰엘 그룹전(1962), 세계문화자유회의 초대전(1963) 등 다수의 정기전과 그룹전에 참여했고, 파리비엔날레(1965), 상파울로비엔날레(1967) 등에 한국 작가로 출품했다.

1967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파리와 일본 고베에서 활동하다 1992년 11월 귀국해 경기도 여주에 작업실을 짓고 줄곧 한국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갔다.

학창 시절 구상 회화를 주로 그렸던 고인은 1950년대 중후반이 지나면서 표현주의적 추상을 실험했고, 1969년 고베로 건너갈 무렵부터 단색조 추상 작업을 시작했다. 이 시절 단색조의 격자형 화면 구조가 확립됐다.

고인은 다양한 기법과 매체 실험을 통해 캔버스 위에 물감을 '들어내고 메우기'를 바탕으로 한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 방법론을 발견해냈다. 물감을 칠한 화폭을 뜯고 물감 메워놓기를 반복해 격자형 평면을 만드는 기법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첫 번째 남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친밀한 리플리(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30 꾸러기 탐구생활
11	10 사랑의 가족(재)	10 셀럽병사의 비밀(재)	15 건강의 재구성 썰록(재)	00 탑클래스(재)
12	00 KBS 뉴스 12	25 동네 한 바퀴(재)	00 12 MBC 뉴스 25 오늘N(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랄라 행복한 곰돌이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해드림 컴퍼니 50 KBS 뉴스	30 친밀한 리플리 스페셜	2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00 고향이 보인다
2	00 방과 후 초능력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열린채널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캡슐세이버(재)	55 기분 좋은 날(재)	00 투데이(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누가누가 잘하나	55 5시 뉴스와 경제	00 테마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30 놓친 예능 따라잡기	10 건강 하우스 깡있는 아침(재)	00 SBS 오뉴스 30 캐리와 친구들(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00 네모세모(재) 50 KBC뉴스와이드(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친밀한 리플리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첫 번째 남자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마리와 별난 아빠들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더 로직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자식 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선
10	00 사이언스 워 50 KBS 뉴스라인W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0 말자쇼(재)	50 MBC 뉴스 25	50 열린예술무대 뒤란(재)
12	00 KBS 중계석 〈첼리스트 김민지 리사이틀〉	10 아이 러브 스포츠 3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0 리얼 라이브	50 싱싱! 고향별곡(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화려한 사막 도시, 두바이
-두바이 사람들이 사는 법〉
07:00 꼬마마법사 주니토니
07:15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메탈카드봇W 강철의 포효
08:00 딩동댕 딩동댕
08:20 최고다! 호기심 딱지
08:50 슈퍼윙스 슈퍼콤보
09:20 탑골스타 개청이(재)
09:4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건축탐구 - 집(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샤와 곰
15:55 블록스
16:10 딩동댕 딩동댕(재)
16:30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17:00 페파 피그
17:10 나의 비밀친구 해치(재)
17:25 메탈카드봇W 강철의 포효(재)
17:40 타타와 쿠마 오늘도 대모험(재)
17:50 탑골스타 개청이
18:10 EBS 뉴스
18:30 PD로그(재)
19:20 고향민국
19:50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재)
20:40 세계테마기행
〈인도양과 태평양의 경계, 소순다 열도 기행
-바다 유목민의 섬〉
21:35 한국기행
〈백두대간을 걷다 4부
덕유산 겨울 찬가〉
21:55 손주 보러 세계일주 - 할매가 간다!
22:45 EBS 다큐프라임(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9일 (음 12월 11일 癸卯)

☎ 010-9790-8237

子 48년생 돌발 상황이 속출하면서 정신없겠다. 60년생 파악한 후에 대처하는 것이 중하다. 72년생 애매하다거나 번거롭더라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것이 낫다. 84년생 목표에 도전해도 되는 무난한 날이로다. 96년생 상세한 정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08년생 막연히 비교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5, 71

丑 37년생 화의 씨앗은 아예 만들지 말라. 49년생 바닥이 나서 극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61년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요령이 긴요하도다. 73년생 한계 상황에 이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다. 85년생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이다. 97년생 실제보다 훨씬 돋보일 것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7, 63

寅 38년생 망실될 수도 있으니 관리를 잘 하라. 50년생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62년생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뜻깊은 날이다. 74년생 아무리 좋아도 차제에 확실하게 청산하는 것이 길조를 부른다. 86년생 인식을 잘 해야 쉽게 적응할 수 있느니라. 98년생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82, 87

卯 39년생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 비능률적이다. 51년생 활이 꺾이고 화살이 다 떨어진 이치이다. 63년생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보인다. 75년생 한정하지 않는다면 통제하기 힘든 형세이니라. 87년생 파격적인 발상이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99년생 하자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행운의 숫자 : 39, 99

辰 40년생 갑자기 서두른다면 무리가 따를 것이다. 52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64년생 의도는 좋으나 호응이 약한 것이 아쉽다. 76년생 애초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바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겠다. 88년생 주관적인 심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겠다. 00년생 지나치다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36, 79

巳 41년생 절대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53년생 돈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게 되어 있다. 65년생 현재의 국면을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 77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진다. 89년생 자신 있게 행한다면 충분히 가치를 창출해 낸다. 01년생 자신 있게 진행한다면 양호한 결과를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 30, 61

午 42년생 순조로운 과정에서 소폭적인 이동수가 보인다. 54년생 만사를 제쳐 두고 도와 줘야 할 일이 생긴다. 66년생 특별한 판세이니 만큼 일을 실행하기 이전에 치밀한 분석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78년생 적합하므로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90년생 식상함을 거두고 새로움을 추구하라. 02년생 목표를 향해 진일보하리라. 행운의 숫자 : 07, 60

未 43년생 고생해 놓고 남 좋은 일만 시킨다. 55년생 계획을 잘 세워야 진행하는 과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67년생 상부상조한다면 능률을 극대화한다. 79년생 외형상으로는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91년생 짜임새 있는 시간 활용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03년생 이동수나 매매운이 원활하겠다. 행운의 숫자 : 19, 81

申 44년생 사리에 밝은 사람의 말에 따르도록 하자. 56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 68년생 일단 상대의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순서이다. 80년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도다. 92년생 별개의 개념이니 함께 다룰 일이 아니다. 04년생 지나친 것은 소비가 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05, 72

酉 45년생 결과 보다는 과정이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57년생 빈틈없이 도모한다면 기필코 이루리라. 69년생 지금 시비를 명백하게 가려두지 않는다면 후환을 초래할 수 있다. 81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낫다. 93년생 정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05년생 안정세를 취하면서 견고해지겠다. 행운의 숫자 : 18, 78

戌 46년생 바탕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한계 정황에 봉착한다. 58년생 활력이 넘치면서 획기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 70년생 모두가 자신의 마음과 같지는 않아서 무척 힘들 수 있다. 82년생 귀가 솔깃해질 일이 생기겠다. 94년생 보지만 말고 직접 해야 하느니라. 06년생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아가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8, 83

亥 47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만 난국을 풀 수 있을 것이다. 59년생 진정성을 보여 준다면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느니라. 71년생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유리하다. 83년생 가부를 분명히 표해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95년생 판세에 맞지 않는다면 부작용만 속출한다. 07년생 허점을 보이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4, 77